16. 경작자(농부)의 길(2)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다.

2장에 와서는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러저러했다고 하였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혼이 되게 하셨다. 그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는데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다.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경작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한다. 동산은 어느 지역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역이다.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영역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영역이다.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한다.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의미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성막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지만 속 내용은 나무다. 그리고 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금이 입혀져 있다. 나무가 둥글면 금은 둥글게 입혀지고 나무가 네모나면 금은 네모나게 입혀진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다. 성막 안에 가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신약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이 말도 같은 말이다.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이다. 이것을 건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성막이다. 그리고 이것을 인격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성육신이다. 이것이 한걸음 더 나가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 생명체다. 우리는 이 세계를 두고 보는 것이다.

이것을 농사짓듯이 경작하라고 하신 것이다. 경작할 사람에게는 씨가 있어야 한다. 씨

는 경작을 해야 되지 그냥 두면 씨일 뿐이다. 경작을 하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 천 배도 나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경작하라는 것이다.

경작할 씨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성품, 성질, 본질을 사람 속에서 경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우리 속에서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간증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뿌린 씨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가 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어떤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당신이 주신 씨가 열매가 되어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 이상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니까 자기 생명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은 자기가 심은 씨가 인격이 되어 나올 때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사람을 지은 것보다 더 기쁘실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곧 이 때라.” 하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아들로서 예배할 때다. 천주교식으로 예배해야 하느냐 기독교식으로 예배해야 하느냐는 말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이다. 아들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을 듣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경험해 봐도 알 수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여러분 속에서 재배되어서 간증으로 나오면 그것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케 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나올 때 여러분 인생은 영광스럽다. 이것을 알고 나면 다른 재미가 없어진다.

아들을 낳은 기쁨을 인해서 엄마는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남자는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데 나는 변비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치질 수술을 해서 삼일 후에 대변을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힘만 빠지고 지쳐 버렸다. 힘만 계속 쓰이지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하면 죽을 것 같았다. 그때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은 그보다 더한 고통이고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여자는 아기

를 낳고 나면 또 낳고 싶어진다고 한다. 낳을 때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제일 기뻐하실 때가 그분을 향한 간증을 할 때다. 이것이 예배다. 알고 보면 간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듣기 좋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것과 같다. 씨가 왔는데 그대로 도로 나오면 기쁨이 되겠는가. 씨 하나를 심었는데 도로 하나가 나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변비를 고치려고 생콩을 그냥 먹는 사람이 있다. 생콩을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연동운동을 일으켜서 변비가 좋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콩이 그대로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생콩으로 도로 나오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생콩은 몸에 흡수가 안된다. 생콩만 먹고 도로 내놓으면 사람이 못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서 경작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말이 이런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경작해 내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동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 외에는 불가능하다. 다른 동물은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작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아이들을 보면 누구 아이들이라도 다 예쁘고 귀엽다. 그러나 자기 자식과는 다르다. 꼭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심히 좋다고 하셨다. 하나님을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다. 이것을 알면 사람이 얼마나 복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서 나가 버리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사업도 해 보고 많이 해 보았을 것이다. 성경에는 허랑방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망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팔아먹고 망한 줄 알지만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밖에서 기다렸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싫다며 나가서 재산을 다 팔아먹은 아들을 왜 기다리느냐고 하겠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어쩌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부모가 하는 말을 진짜로 알고 나가 버리는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 마음은 문밖에서 매일 기다린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다. 왜 그런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자기를 맡길, 자기의 씨를 맡길 후사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 잘났는가 못났는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내 아들이 아니면 내 후사를 낳을 수 없다. 병신이라도 내 아들이라야 내 후사를 낳지 대통령이라도 내 아들이 아니면 내 후사를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왜 다 같이 보시는가? 하나님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대통령이든 병신이든 전혀 관계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위치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위치도 없다. 누가 나를 부모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겠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도를 통해서 천지를 통달하고 다 안다 해도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귀중하게 여길 사람은 없다. 내가 스스로 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나를 귀중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누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있다. 물건의 가치는 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에 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면 많은 돈을 주고라도 그 물건을 산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천국은 진주장수 같다는 말이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고 했는데 누가 산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셨다는 것이다. 자기 자식을 구출하려면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구출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자기의 장기를 빼 준다. 자기의 생명을 내 주고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아니면 사람이라고 귀중하게 여길 것이 없다. 나 혼자 스스로 사는 것이지 누가 나를 귀중히 여기겠는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귀중히 여기면 좋아하지만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한다. 인생 사는 맛이 없고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그것이 내가 사는 보람이 된다. 선을 아무리 행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선을 행할 사람이 없다.

영어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도 어려서부터 영어를 좋아했는데 몸이 아파서 영어 공부를 못했다. 병이 낫고 보니 나이가 스물이 넘어서 그 뒤로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 생각이 전혀 안났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고 보니 '그때 영어 공부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가 생기니까 집에서 시간이 많았는데 왜 그때 공부를 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

이다.

누구에게 필요해야 내가 값이 있지 아무에게도 필 없는 사람이 무슨 값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 달라고 한다. 부자가 자기를 알아 달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주면서 왜 자기를 알아 달라고 하는가. 은행에 맡긴 돈만 자랑하면서 자기를 알아 달라고 하면 '왜 나에게 돈 한 푼 안주면서 돈 자랑만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 밉상들이 더러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인생은 갈 데가 없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우리의 조건이 상관없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안되고 높은 지위에 있느냐 아니냐도 문제가 안된다. 하나님께는 오로지 자기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만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인격이 되는 것밖에는 필요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나면 인생이 간단해진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라며 복잡하게 하던 것이 다 정리된다.

아직도 이렇게 안되는 사람이 많다. 인생관이라는 것이 잘 잡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해도 잘 안된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간단하게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 아직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다른 것을 다 잘해도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된다. 공부를 하면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남 주는 것이 아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도 부모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해 준다. 출세하려면,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대답은 절대적인 목표가 되지 못한다. 아이가 "나는 출세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공부를 못해도 아이들은 부모 밑에 있으니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으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 옛날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으니까 공부를 해야 직장도 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한다. 부잣집 아이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공부시키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뿐이다. 그분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니까 나를 보고 공부 잘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달리기를 잘하라고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없는 분이다. 그렇다고 달리기를 못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달리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한다. 그런데 하

나님께는 그런 것이 필요없다.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도 그분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도 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육신의 자식은 하나님이 낳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새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새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 영역에서 할 일이다.

이것이 잘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내가 사는 영역이 행복하지만 이것이 안되면 하나님과 내가 사는 영역이 잘 안되는 것이다. 사업적인 친구도 있고 학문적인 친구도 있다. 학문적인 친구는 학문이 잘될 때 필요하고 사업적인 친구는 사업이 잘될 때 필요하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신약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2-23).”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일은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는 네 필요 때문에 했겠지만 내가 찾고 있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생선을 사 오라고 했는데 생선은 안사 오고 채소만 사 왔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수고 많이 했다고 하겠는가, 왜 채소를 사 왔느냐며 나무라겠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이것이 문제다. 밥상을 차리려면 먹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차려야 되지 먹을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잔뜩 차려 놓으면 오히려 신경질만 나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님은 돼지고기를 잡숫지 않았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기침이 난다며 안잡숫고 소고기만 잡수셨다. 그런데 어머니는 소고기는 냄새난다며 안잡숫고 돼지고기만 잡수셨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고기 먹을 기회가 없었다. 우리 앞집에 푸줏간이 있어서 이따금 소를 잡으면 아버님은 소고기를 잡숫고 싶어서 한두 근을 사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냄새가 싫어서 대강 썰고 김치를 넣어서 한 그릇에 다 끓이셨다. 그래도 아버님은 할 수 없이 잡수셔야 했다. 그리고 아버님은 돼지고기는

사지 않아서 어머니는 돼지고기를 잡숫고 싶어도 잡수실 수 없었다. 잔칫집에서 돼지고기 한두 점 먹는 것밖에 없었다. 그때는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충분했는데 두 분이 잡숫는 것이 다르니까 나는 고기를 얻어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어디 쓰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하나님께 전혀 필요치 않은 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너희가 조석으로 드리는 제물의 냄새를 맡기가 괴롭다는 말이 나온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정성껏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예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밭에 경작을 하는 것이다. '나'라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로 경작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 안되는가?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생명이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자식을 잘 낳는 것이 아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여자가 아기를 잘 낳겠는가? 지식과 생육은 아무 관계가 없다.

옛날에는 선을 볼 때 여자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지를 보았다. 관상을 잘 보면 아기를 많이 낳을 여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여자가 있다. 다산형이 있고 소산형이 있는 셈이다. 돼지를 사 와도 새끼를 잘 낳고 많이 낳을 것인가를 보고 샀다. 사람도 관상을 보고 몸을 보면 다산형인지 알 수 있다. 나는 그런 것을 보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100% 생명의 문제지 지식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사람을 지어 놓고 무엇을 알라고 하지 않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경작하는 문제는 무엇을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요즘 상업적인 농업은 지식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데 농사는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씨뿌리고 경작하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되는가? 지식이 들어오면 생명이 죽어 버리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라도 나에게 지식이 들어오면 아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게 되고 잘못하면 미워진다. 내 아버지라 해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보게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미워질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간에 원수된 사람이 많다. 피는 같은 피인데 지식 때문에 갈라진 것이다. 부자간에 이념이 다른 경우도 역시 그렇게 된다.

지식은 무엇이든지 갈라내고 분열시킨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생명의 관계는 머리가 좋은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히려 방해가 되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주 가깝게는 교회생활은 지식과 관계없다. 지식이 없다고 교회생활을 못하거나 지식이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생활은 생명의 교통이지 지식의 교통이 아니다.

지식의 교통을 하게 되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박사 학위끼리 교통하고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석사 학위끼리 교통하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끼리 교통하게 된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과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화가 안된다. 지식은 생명의 세계에 도움이 안된다. 지식은 과학을 발전시킨다든지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생명을 낳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도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무식해도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못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공평한지 신기하다. 지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니 공평할 수 없다. 아무리 평준화시키려고 해도 평준화가 안된다. 그런데 생명은 다 공평하다. 유무식과 상관이 없다. 생명의 세계는 지식이 있고 없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세계다.

우리 교회에서 순모임을 하는데 지식이 많다 해서 잘되고 지식이 없다 해서 안되는가?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너무 순수하고 순전한 것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데도 어쩐지 순수하지 못하고 무엇이 많이 끼어있다. 지식과 생명은 관계가 없다. 서로 안좋은 관계지 좋은 관계는 아니다. 지식이 필요한 데는 다른 데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신학교에 온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신학교는 모르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다. 신학교를 나왔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동산을 경작하기 위해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악과가 있으면 안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선악과가 있으면 안된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선악과가 있으면 안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선악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식한 아버지와 유식한 아들이 앉아 있으면 할

말이 있겠는가. 아무 할 말이 없다. 부부간에도 유식하면 사이가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무식해도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고 지식이 많아도 사이가 안좋은 부부도 있다. 지식은 부부 사이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절대로 먹으면 안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금물이다. 바깥에 나가서는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교회적 관계가 안된다. 직장에 가면 선악과가 있어도 괜찮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상관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절대로 선악과가 있으면 안된다.

여러분이 혹시 교통이 안된다고 생각되면 지식을 버려야 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버려야 교통이 되지 그 지식이 있으면 교통이 안된다. 이것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다. 지식이 있으면 서로 교통이 안된다. 지식은 가르치려고만 한다. 순모임에 오기만 하면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통이 안된다. 순모임은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교통하는 데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안듣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교회가 안되는 것이다.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다. 선악과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는데 교회로 시작되니까 맨 처음에 이 문제가 걸렸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선악과를 배격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생명을 너무 주장한다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생명교회라고 했다. 다른 사람이 생명교회라고 한 데가 있어서 못하고 말았는데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동산은 생명을 경작하는 곳이지 지식을 경작하는 곳이 아니다.

지식을 경작하는 데는 학교다. 학원, 학교, 대학, 직장에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명과는 무관하다. 참된 교통은 지식으로는 안된다.

두 번째는 연합이다.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려면,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영역을 풍성하게 하려면 연합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안된다.

이것을 쉽게 표현한 것이 암수로 지으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는 암수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 ‘남자와 여자’라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뜻보다 암수라는 의미가 강하다.

생명의 세계를 보면 다 암수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다. 어느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생명은 없다. 식물도 암수가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은행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열리는데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암놈이고 열리지 않는 것은 수놈이다. 생긴 것이 다르다. 우리 교회에도 은행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열리는 것은 몇 나무 안된다. 가지가 옆으로 뻗어서 생긴 것은 보기 싫은데 거기서 열매가 열린다. 그런데 보기 좋게 생긴 은행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 암수가 같이 있어야 꽃가루가 연결되고 교통이 되지 한 가지만 있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소나무도 그렇고 잣나무도 그렇다. 어느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홀로 무엇이 되려는 것은 천리를 어기려는 것이다. 홀로 도를 통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되었든 홀로 되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어기는 것이다. 닭으로 말하면 무정란과 같다. 케이지에 넣고 닭을 키우는 것을 보면 비참하다. 옴짝달싹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한다. 밥만 겨우 목을 내놓고 먹고 똥은 뒤로 싸고 알도 뒤로 깐다. 수놈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온 것은 다 무정란이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도 무정란은 병아리가 안된다. 어떻게 알 속에 씨를 넣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생명은 신비하다.

이렇게 명백한 이치를 두고 홀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인데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홀로 도를 통하고 무엇을 알려는 것이다. 사람은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졌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것을 육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남자와 여자다.

아담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나님 세계는 홀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데서는 홀로 똑똑해야 알아주지만 하나님 세계에는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을 이끌어 오시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한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개라 이름한 것은 개가 되고 소라 이름한 것은 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하였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왜 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으셨는가? 이름을 다 지었어도 그 중에는 아담의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은 사람의 배필은 같은 생명이라야

된다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송홧가루가 날릴 텐데 소나무 가루에는 암수가 섞여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솔방울이 되는 것이지 한 가지만 있으면 솔방울이 안된다. 그리고 잣나무와 같이 있어도 잣나무 가루로는 소나무가 안된다. 무엇이든지 같은 생명이라야 되는 것이다.

당나귀와 말이 교배해서 나온 것이 노새다. 노새는 생식력이 없어서 새끼를 낳지 못한다. 죽으면 대가 끊긴다. 육종학계에서 유명한 우장춘 박사가 옛날에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수박은 당대로 끝났다. 해마다 홀수 염색체를 가진 3배체 씨를 만들어야 했는데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다. 육종학에 기여는 했지만 씨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씨 없는 수박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천지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하나도 암수가 없이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만 특별히 되겠는가? 홀로 도를 닦는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깨달으려는 것인데 홀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기(緣起)라고 한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말이니까 인과법과 비슷하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파도가 일겠느냐는 것이다. 바람이 자면 파도는 없어지니까 파도가 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어디서 바람이 불면 또 파도가 인다. 그렇지만 바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 나왔다. 연기법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런데 그것도 둘이 합해서 되는 것이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바람이 저절로 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어서 부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저절로 있겠는가? 사람은 저절로 있을 수 없다. 연기법에 따르면 무슨 원인이 있어서 사람이 있는 것이지 원인이 없이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을 오해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예수님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얼마나 확실하고 진실한 말인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말이 많으니까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셨다. 스스로 하신 일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겠는가? 남이 십자가에 못박았으니까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스스로 못박았으면 내가 빼고 내려오면 되는데 남이 박았기 때문에 못내려온 것이다. 그것도 인과다. 인연의 법칙에 의해 못박은 사람이 있고 못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세상 보는 것이 쉬워진다. 어떤 일이 오면 ‘왜 이런 것이 오는가?’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이 왜 왔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면 한숨 돌리게 된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저절로 있는 것은 없다. 저절로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다. 저절로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저절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우

리가 볼 때 저절로 있는 분이고 스스로 있는 분이다.

모세는 처음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나는 ~ 이다.'라는 의미다. '나는 ~ 이다.'라는 말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된다는 뜻이다. 'I am ~.'의 'am'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동사니까 그 뒤에 무엇이 붙어야 한다. 뒤에 무엇이 붙으면 그렇게 되는 존재라는 뜻이 된다. 'I am the light.'라고 하면 빛이 되고 'I am the truth.'라고 하면 진리가 되고 'I am the life.'라고 하면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인연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는 누군지 말할 수 없다. '나는 ~ 이다.'니까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할 수 없다.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되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일어났어도 전화 한 통 받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나는 원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일어날 때는 기분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전화 한 통 받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것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되는 것이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 맞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틀린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없다.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어떤 분이 아버지지 그냥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떤 분이 하나님이다.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나는 'I am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장사를 하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장사꾼이 된다. 나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도 같은 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면 나는 저렇게 나타난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도록 쓰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는 또 그렇게 쓰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그릇에 따라 다르다. 같은 그릇인데 한 되짜리가 있고 한 말짜리가 있고 두 말짜리가 있다. 태평양에 가서 물을 떠 오라고 하면 한 되짜리 그릇은 한 되를, 한 말짜리 그릇은 한 말을, 두 말짜리 그릇은 두 말을 떠 온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시겠는가? 한 되를 떠 왔다고 나무라겠는가? 한 되짜리가 한 되를 떠 왔으면 전부를 떠 온 것이다. 주인이 돈을 맡겼는데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종들에게는 다섯 달란트와 열 달란트를 맡겼다.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해 보니 두 종은 이익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맡은 놈은 땅 속에 묻어 놓았다가 도로 한 달란트를 갖고 왔다. 그래서 꾸짖었다고 하셨다. 이익을 남기라고 주셨으면 얼마가 되든 이익을 남겨야 되지 땅에 묻어 놓으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사람의 분수대로 쓰시니까 어디에 쓰여야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되가 필요할 때는 한 되짜리면 된다. 물 한 되가 필요한데 한 말짜리 통에 담으려면 무겁기만 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큰 대접에 마시겠는가. 커피를 마실 때는 잔이 필요하고 곰탕을 먹을 때는 큰 대접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달린 것이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나는 못만드는가?'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데 쓰시지 모든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도록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셨겠지만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시키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 분량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나만큼 쓰시는 것이다.

우리는 직장에 가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들어 보니 근무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하루 일할 분량만 하면 된다고 한다. 상사가 하루 일할 분량을 주면 10시에 와서 7시까지 하든지 4시에 끝내고 가든지 자유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침 일찍 가고 오후에 일찍 온다. 상사는 직원이 몇 시간이면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일할 수 있는 분량을 안다. 선교사 밑에서 일하던 친구의 말이 그 선교사는 매일 아침에 자기가 할 일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하루 종일 해야 할 분량의 일을 갖다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내 분량에 맞게 주시는 분이지 내 분량밖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다 다르니까 다르게 쓰신다. 옛날에 목회하러 나가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북새통을 쳐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좇아다니면서 해 봤지만 되지 않았다. 기도를 해 봐도 안되고 흉내를 내 봐도 안되었다. 결국 나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나에게 주신 것 같다. 내가 병 고치는 일을 맡았다면 그런대로 쓰였겠지만 나는 그런

일은 못했어도 더 좋은 일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일을 주셨다. 그러니 아직 이 나이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병 고치던 분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쓸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면 된다.

아담은 자기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고 말했다.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표현이 있겠는가! 세상에 어느 연애 편지도 이렇게 쓸 수 없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은 내 생명이라는 말이다. 생명 안에서 하나인 것보다 더 짙은 것은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생명보다 더 짙어질 수 없다. 한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마지막 구절이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해야 된다. 홀로는 할 수 없다. 이것만 알아도 인생을 거의 다 아는 것이다.

나는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이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되지만 내가 못하는 일이 많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 주면 좋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해 준다.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일을 해 준다.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려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해 주면 된다.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될 수 있는가? 예수와 내가 연합되면 연합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십자가에 못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과 내가 연합되는데 누구와 연합이 안되겠는가! 내가 중장과 연합이 되었어도 대장과는 연합이 안된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라고 발견되었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연합할 사람이 온 세상에 다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만유를 포함하셨다고 하였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연합할 수 있겠으며 내가 연합하자고 한다고 연합이 되겠는가? 연합하려고 가 보면 이름이 개고 소고 말이다. 그래서 안된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과 연합된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것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다. 이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듣는 순간 내 세계가 열린다.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모든 장벽이 사라진다. 자기를 버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어느 것이 소아(小我)고 어느 것이 대아(大我)인지 구별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포함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소용없다. 없어도 상관이 없다.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것이 최종적인 복음이라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내 안에 포함되고 나도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가 똑같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